



과학기술정보협의회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HOME

ASTI안내

고객센터



로그아웃



ASTI소식



기업분석 서비스



정보광장



ASTI라운지

과학기술정보협의회가 중소기업과 함께합니다.  
Association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ASTI

정보광장

ASTI 컬럼



정부지원사업의 개요

김창화 (서울지역팀 I 서울)

2017-1

우리경제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자금력 부족, 그로 인한 조직력 약화, 결국 영업뿐 아니라 개발 등 모든 역량에 한계가 생긴 특이 매출이 작아 자금유동성도 부족하다보니 시장에 필요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상해도 자금도 조직도 부족하여 개발역력이 없으니 정력은 제자리걸음일 것이다.

그러한 중소기업들에 개발역량을 지원하고자 정부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와 산하 전담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TIPA),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KEIT)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학기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통원)(NIPA),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농림수산물식품기획평가원(농기평)(iPET),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등이 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에 포함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사업 정보들은 중기부 산하 각 기관들에서 확인 가능한데, 창업진흥원(창진원)(KISED)의 홈페이지와 『K-Startup』, 기정원의 홈페이지와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SBC)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1조원 이상의 정부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정원의 『종합관리시스템』(SMTECH, [smtech.go.kr](http://smtech.go.kr))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접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R&D 및 비R&D 지원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들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중이다.

한편 수도권에 비해 개발역력이 약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다양한 전략적 목적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나 교육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원자력 및 방산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은 본 내용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내용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로 접하게 될 중기부와 산하전담기관 기정원 지원사업 위주로 소개하고자 하며,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중기 절차에 준하며, 정부지원사업에 익숙하지 않다는 가정으로 초보수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만일 정부지원사업 경험이 없던 분들이 창업후 개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공고된 사업들을 보면 엄청난 파일들의 존재에 압도당할 듯 하고, 또한 현물, 바우처, 기술료 같은 낯선 용어들은 제3외국어 같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법과 지침 보완하고 절차를 개선하여 상당한 완성도를 갖춘 제도이다. 따라서 어려워보여도 한두 번 정독해보면 새로운 전문용어 몇 개를 제외하면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다.

게시된 파일들 중에 ① ‘공고문’이 가장 중요하므로 정독하여 파악해야 하는데, 지원분야와 자격, 사업비와 기간, 지원방법 등을 명히 규정한다. 공고문으로 이해가 힘들 경우, 중기부의 경우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의 ‘정보마당-규정및서식’에서 해당사업의 ② ‘정’을 열람하면 된다. 그래도 의문이 생기면 과기부의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명 공동관리규정) 및 산업부의 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고하면 되며, 중기부도 향후 독자적 규정 또는 지침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규정들을 계속 수정할 것이므로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분들조차 매년 새로운 공문을 보면 또 새로운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에 즉시 질문하는 것보다, 일정기간 동안 의문사항들을 엑시트(Microsoft사) 등에 모아서 분류 확인하고, 앞에 소개한 ① 공고문, ② 해당 사업규정, ③ 공동관리규정을 잠시라도 검토한 다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담당자 또는 간사위원들은 고정적인 행정서류 업무, 잦은 교육과 출장, 종일 평가장 지원과 보고서 성등으로 바빠서 통화가 힘들 때가 많지만, 담당자도 사람이다 보니 몇 일간 계속 질문들을 수십 번 받는다면 편안한 답변의 기대가 어려울지도 모르니, 사전검토후 종합적인 질문들을 한다면 후일을 위한 학습효과에도 도움될 것이다.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지원자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전문기관’ 기정원, 선정된 지원사업의 수행을 관리하는 ‘관리기관’ 지방청, 기타 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수요처 관리기관’이 구분되어 있으나, 그런 용어를 라도 과제 수행에는 지장 없을 것이다.

각 부처 및 산하기관들은 전년도 연말 또는 신년 초에 당해년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매달 시기가 되면 각 사업들에 대하여 1차 지 4차까지, 또는 미소진 사업이나 국회 추경예산 등으로 추가접수 할 때도 있다. 중기부의 대부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및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는데, 이때 기업이라 함은 법인기업, 협동조합, 개인기업 등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개인기업의 개인사업자도 개발을 희망한다면 자격이 되나, 다만 대표를 포함한 조직이 개발과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받을 있는 전문분야나 업력이 있어야 좋을 것이며, 이때 조직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을 의미한다.



http://www.astinet.kr/front/information/column/retrieve.do

1/3

‘공고일’은 신입사원 해당여부 또는 ‘3책5공’ 제한의 판정에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공고일로부터 대략 한 달 이내 접수를 마감하는 신청접수는 대체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들의 협약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편이다. 따라서 접수는 사업계획서, 지원서, 각종 동의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접수한 서류들은 ‘전문기관’ 기정원에서 ‘서면평가’ 절차에 따라 간사위원 및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하여 적절한 배점기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에는 유관분야의 제조업체 임원들이 평가위원으로 많이 참여되므로, 허술한 지식으로 내용을 메꾸기보다 개발 예정품에 대한 심도있는 기술성과 사업성공 가능성을 강력히 역설하는 중요하다.

서면평가에서 ‘추천’되면 중기부의 경우 2017년부터 추가된 ‘현장평가’가 진행되는데, 해당 지방청의 담당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사장의 존재와 4대보험 연구원 등 각종 기업자료들을 점검한다. 이때 총 100점 중에 약 20% 비율의 점수를 평가하는데, 미리 공지에도 불구하고 서류준비가 부족하여 평가 배제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어렵지 않아 보여도 충분히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그 후 ‘대면평가’는 중기부의 경우 2017년부터 30분 발표와 30분 질의답변으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Microsoft사의 PowerPoint 형으로 발표하지만 일부 지원자는 아래  글 양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타 기관의 일부 사업은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초 제출 아래  글 양식의 사업계획서로 대면발표를 진행하기도 한다.

대면평가에서도 ‘추천’이 되어 최종적인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드디어 ‘협약’을 하게 된다. 협약시는 선정된 과제와 과제책임자와 연구원들에 대한 단체교육, 대면평가에서 지적된 개발목표(제품, 특허 등) 및 평가지표(성능지표) 등 수정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비를 수정한 수정 사업비 제출, 지원사업 전용계좌 개설 및 지원사업비 입금 등으로 진행되면서 : 몇 지원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마 이쯤이면 경쟁률이 몹시 궁금해질 것이다. 일부 기관은 공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라서 당시 지원자들의 구전을 통한 문만 무성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추정해 볼 때, 중기부 사업들은 대략 5~10대1 범위로 예상되는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들은 더 높을 때도 있거나 일부 특성화 과제들 더 낮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 등의 사업비 규모가 큰 지원사업들은 경쟁률이 낮다. 창업지원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매출액에 기반하는 부설연구소와 고학력 연구원들의 강력한 조직력으로 경쟁률이란 수치보다 완성도나 결과물로 평가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상하는 지원사업의 경쟁률과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

한편 기우일지 모르나, 간혹 주변에 보면 평가위원 또는 기관 책임자를 잘 알면 선정에 유리할 것이라 착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시는 듯하다. 모든 평가는 각 전문분야 수만 명의 평가위원 pool에서 지원분야와 유관한 범위의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전산상 무작위로 선정하고, 평가 중에도 지원기업과 동일기관 소속 또는 직계존비속일 경우 배제되며, 평가위원이 평가중 이해관계를 확인후 자진하여 일부 평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IMF, 세계 4대체전(올림픽 3종과 월드컵), 대통령 일시부재 등 어떤 역경에도 견뎌낼 만큼의 시스템 안정화되어 있듯이, 지원사업의 평가에도 어떤 부정부패나 비리가 관여할 틈도 없고, 간사위원과 평가위원들이 철저한 중립으로 국·전략적 우수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래서 오로지 소신과 노력으로 지원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상은 정부지원사업을 경험하지 않은 초보수준을 기준하여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위한 중기부 지원사업 위주로 소개하였고, 타 지원사업의 특성은 지원분야 및 규모가 더 전문화된 점을 제외하면 중기부와 대동소이하여 생략하였으며, 가급적 알아둘 필요가 있는 용어들은 문장에 설명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다음 컬럼(제2회)에서는 정부지원사업의 서면평가(사업계획서), 현장평가, 대면평가(발표) 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무작정 양식만 채우고 흡족해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목차들을 파악하고, 각 항목들의 의도에 대하여 정확한 대응전략들을 소개하고 한다.

[참고] 본 내용의 수치와 기준 등은 정부의 정책 또는 부처별 전략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보기

이전글이 없습니다. ^ \_ ^

다음글 ^ \_ ^ 정부지원사업의 준비

댓글(3)

♥ 좋아요 0